



중동의 연속 혁명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8~9면

국제 여성의 날 특집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

▶ 12~13면

트로츠키의 혁명적 유산 ③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켜내다

▶ 7면

자본주의와 복지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 낳는다?

▶ 14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미디 이송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2011년 2월 26일 ~ 3월 11일 | 제51호 | 값 1,800원

레프트21

중동의 연속혁명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리비아
혁명에
승리를!

바레인?
예멘?

관련 기사
3~6면

세상은 요지경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중국 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중동 혁명 때문에 인터넷 단속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집트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친구 하나 없는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의 격정

“우리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고자 한다”
이집트 혁명 참가자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 이제 막 안정적 회복단계에 온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 된다.”
해외 민주화도 싫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

“공정사회를 얘기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친서민을 얘기할수록 서민과 비서민으로 편이 갈리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청와대의 ‘대통령 브랜드 이미지 전략’ 보고서

“요즘 같이 구제역이 심할때 구제역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은 말이 된다. 구제역은 대통령, 도지사 책임이다.”

김문수의 바른 소리

“물가난과 전세난은 정권 탄핵 사유에 부족함이 없다. 폭등한 생필품값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몇십 퍼센트씩 깎인 서민들, 치솟은 전세금 때문에 살 곳이 막막해진 세입자들로서는 이러려고 우파 정권을 뽑았나 후회가 절로 들 것”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친이계가 분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간조선> 최신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본다.”
친박계 의원

“민주당을 흡사라도 양치기 소년 정당이나 거짓말 정당으로 국민이 평가할까 매우 두렵다”
무조건 국회 등원 결정을 걱정하는 민주당 박주선

우리의 소중한 벗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정부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강제추방하려 한다. 정부는 그가 ‘허위 취업’을 했으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자로 ‘출국명령’을 통보했다. 정해진 절차대로 취업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허가’까지 받았던 합법적 취업이 1년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미셸 위원장을 추방하려는 진짜 이유는 그가 입에 발린 ‘다문화’를 외치는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런 정부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노아르, 까지만, 토르너, 마숨, 라주 등 역대 이주노조 간부들이 바로 이 때문에 정부의 ‘표적’이 됐고 결국 대부분 강제 추방을 당했다.

미셸 위원장 역시 여느 노동자들처럼 좀더 나은 미래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그의 어머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을 해 가족을 부양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미셸 역시 그의 송금으로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함께 부양했다. 그는 평소에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전투적인 노동운동가가 됐다. 그가 일했던 공장들은 예외 없이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언제나 참기 어려운 차별과 모욕이 횡행했다. 그는 동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성추행에 시달리고 심지어 강간



정의와 평등을 추구한 '죄'로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된 미셸 위원장

과 끔찍한 구타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상황도 목격했다.

그래서 그는 영문으로 된 노동법 책을 사서 틈틈이 공부했고 차별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법에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멀었다. 그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위원장에 나선 것은 정부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집회와 강연 연단에서, 언론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을 비난했고 투쟁을 호소했다. 또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맞섰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름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짐바브웨 정부

짐바브웨 경찰은 2월 19일 짐바브웨 국제사회주의조직(ISO)이 주최한 ‘중동의 반란’ 토론회를 습격해 52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학생, 노조 활동가, 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라레 중앙 감옥에 수감돼 있다.

짐바브웨 중앙정보국은 이 토론회를 엿담했다.

사람들은 토론회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의 몰락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이는 구타당했다고 한다. 짐바브웨인권연합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그들을 도우려 하지만, 경찰은 도대체 연행

된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죄목이 적용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활동가들은 속히 연행 항의 메시지를 짐바브웨 정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인 무가베는 지금 중동의 민중 반란 물결이 자신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올까 봐 이런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짐바브웨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사회주의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항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socialismfrombelow@gmail.com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인천대학교에서 5년 동안 ‘한국사회와 노동 문제’를 강연해 온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해고됐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다. 부당한 해고에 많은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항의하고 있다.

“선생님은 노동 문제를 쉽고 와 닿게 강연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수강신청을 하면 금세 차 버려서 들으려고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이재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경영학부 4학년)이 말했다.

“학생들도 즐겁하고 노동자가 될 텐데 사실 대학에서 노동 교육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해 파업하는 MBC 노동자들을 불러서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단순히 박사학위라는 잣대 하나로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이 강의는 생길 때 학생회가 수업과 강사를 선정해서 진행한 것인데, 이것을 학교가 일방



1월 금호고속 노동자 파업 현장 하종강 소장(가운데 아래)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대변해 왔다.

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학생 자치권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종강 소장 다음으로 ‘한국사회와 노

동 문제’를 강의할 사람이 기업 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다.

인천대학교는 노동자 편에서 ‘노동 문

자·테러리스트라고 공격할 때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농성을 벌였고 미셸 위원장은 30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저항했다.

미셸 위원장은 이런 투쟁들이 이주노동자들 자신의 조직과 투쟁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했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헌신했다.

그의 이런 활동들이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이 나라 정부의 관료들과 엘리트들은 제3세계 출신의 노동자가 감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행위를 봐줄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주노조가 ‘노동자는 하나’라며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고,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행보도 심히 ‘위험스런’ 일로 여겼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셸 위원장의 이 모든 주장과 활동들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는 정당한 활동이었다.

미셸 위원장은 “나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 단체 들은 법적 대응과 시위 조직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이정원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카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 (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민중이 리비아를 되찾을 것이다”

리비아에서 시위대가 정권의 잔혹한 탄압에 직면하면서 혁명이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중동 반란의 물결에 과감하고 잔인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리비아 민중은 항쟁으로 응수하고 있다.

수만 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몰려 나왔다. 리비아 기간 산업인 석유 산업 노동자들은 항의 파업에 돌입했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

카다피는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 도시와 거주지들을 폭격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는 몸서리칠 만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를 거부했다 처형된 사병들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카다피 정부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리비아 외교관들은 혁명에 합류했다. 전 세계 리비아 대사관 직원들은 대사관을 박차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서는 대규모 장례 행렬이 분노한 대중 시위로 변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고 국가보안국 건물에 불을 질렀다.

시위대는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했다. 그들은 혁명을 지지하는 방송을 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자유, 권리, 존엄성을 얻었습니다. 민중은 리비아를 되찾고 있습니다.”

인접한 도시인 엘바이야드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도 혁명이 일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를 장악한 죽음도 두려워 않는 민중들

어났다.

종교 지도자와 부족 지도자 들은 지지자들을 향해 반카다피 봉기를 일으키라고 호소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모든 리비아인을 상대로 항쟁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정권의 건물들”을 제외한 공공 재산과 민간 재산은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카다피의 용병들은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과 군부대는 혁명 편으로 넘어오고 있다.

시위대와 징병군인 들이 학살당한 벵가지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히 메웠다.

몽둥이, 돌맹이와 노획한 총 몇 정으로 무장한 시위대는 군기와 국가보안국 건물에 있는 중무장한 용병과 정권 충성파 들을 포위했다. 국가보안국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때 카다피의 엘리트 특공부대원들이 건물 밖에 도착했다.

이 부대 지휘 장교는 자기 부대가 혁명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

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부대원들은 무장한 민간인들과 힘을 합쳐 군기지를 접수했다. 벵가지 혁명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리비아 혁명이 과연 승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은 가장 악독한 독재자 치하에서도 저항 정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사이먼 아사프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리비아 민중과 연대한 한국 단체들



송영근 기자

“학살을 중단하라! 리비아에 자유를!”

리비아 민중을 지지하고 카다피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2월 23일 주한 리비아 대사관 앞에서 리비아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눔문화, 다함께, 인권연대, 리비아 민주화를 지지하는 아랍사람들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역사상 자국민의 평화로운 시위를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하며 진압한 사례는 없었다”고 리비아 정부를 규탄하고 학살 중단을 요구했다.

다함께 김용욱 활동가는 “미국과 서방은 겉으로는 리비아 정부와 중동의 독재 정부를 규탄하지만, 혁명의 물결이 끝나고 ‘안정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전 세계 민중이 리비아 민중의 혁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투쟁을 벌이면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 민중의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나눔문화 활동가는 리비아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학살을 중단하라!”, “리비아에 자유를!” 하고 외치며 리비아 민중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김인숙

중동 민중은 외치고 있다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자!”

중동의 반란 물결은 사람들이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할 거라 여겨지던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혁명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중동 정권들이 산산조각나고 있다. 이 운동들은 아랍 노동계급이라는 잡자는 사자를 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정권

도 저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레인, 예멘, 요르단,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 예외는 없다. 심지어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아직 작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 대중이 외친 구호는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의 구호와 동일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이란의 운동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 방방곡곡에서 대중은 자기 지배

자들을 무바라크, 혹은 벤 알리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이집트 활동가 모하메드 칼릴은 <소셜리스트 위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요구하며 단결하고 있다. 그들은 일자리, 먹을 것, 자유, 민주주의, 부패의 종식을 원한다.

반란의 물결이 리비아로 번지면서 지

금 사람들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 서방이 한 때 “미친 개”로 비난했다가 최근에 “우호적인 강자”로 바뀌 불렀던 — 무너뜨리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반란의 물결은 아랍 혁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혁명이 주는 영감과 이 혁명의 파장은 아랍 대륙을 가로질러,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울 때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진실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편집인
일시: 3월 2일 (수)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409호
참가비: 3천 원 (학생·청소년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화관 CYC 4층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포럼 [10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은 왜 차별 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10일 (목) 저녁 7시30분
장소: 모토S빌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 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여성과 혁명 -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연사: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일시: 3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서관) 317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 국제 여성의 날 기념 - 여성해방과 마르크스주의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8일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부산 3·8 여성의 날 기념 - 오늘날 여성은 왜 차별받는가?

연사: 이현주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일시: 3월 8일 (화) 오후 5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추후공지)
문의: 010-5331-1968

충청 복지 논쟁,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장호중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위원, <레프트21>기자)
일시: 3월 11일 (금) 오후 5시
장소: 충남대학교 사회대강의동 102호
문의: 010-2297-4258

인천 왜 21세기에도 기아와 빈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일시: 3월 22일 (화) 오후 7시
장소: 인하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서울 왜 21세기에도 기아와 빈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연사: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일시: 3월 23일 (수) 오후 7시
장소: 고려대학교 (강의실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중동을 강타하는 민중 반란

이 기사들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김용욱 기자가 번역한 것이다.



카다피 — 부패한 미치광이 살인마

무아마르 카다피는 40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했다. 그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권좌를 지켰다. 동시에, 카다피는 서방 정부가 언제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였다.

196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카다피는 자신을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같은 진보적 지도자로 내세웠다.

1950대와 1960년대에 아랍 세계는 나세르가 급진 개혁을 도입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것에 열광했다.

카다피가 이른바 ‘사회주의 공화국’을 내세웠지만 그의 체제는 사실 ‘줄서기’와 부패가 만연한 체제였다. 그는 새로 발견된 대형 유전을 이용해 부족들을 매수하고 잔인하게 반대파를 탄압했다.

카다피가 자금을 제공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조직들은 부패, 범죄행위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카다피와 갈등을 빚은 것은 그의 국내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가 서방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6년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전폭기를 파견했다. 전폭기가 쏜 미사일은 카다피를 맞추지 못했고 트리폴리의 주거지역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 1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은 1986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팬암 항공기 폭발 사고를 포함해 카다피가 테러 사건들의 배후에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건은 카다피를 “미친 개”라고 비난하고 리비아에 대한 전 세계적 경제

재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카다피는 애초에 잊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난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폐기’한 대가로 서방과의 냉랭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로커비 폭발 사건으로 고통받은 유가족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했고 이 폭발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쓴 알델바트 알메그라히에 대한 잘못된 판결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2004년 당시 영국 총리 블레어는 석유 기업 경영자들을 대동하고 리비아를 방문해 카다피와 “사막의 만남”을 갖고 대규모 사업을 벌일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카다피의 굴복을 이

라크 전쟁이 낳은 대표적 순효과로 선전했다.

블레어와 회담한 다음부터 서방 진영은 카다피를 “미친 개”가 아니라 “지역의 실력자”로 부르기 시작했다.

유럽 정부 지도자들은 앞다퉈 그를 환영했다. 카다피, 그의 아들들과 측근 인사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다.

그러나 이런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카다피 치하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은 잊혀졌다.

서방 정부들은 카다피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리비아 민중의 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사이먼 아사프



미국에서 열린 리비아 혁명 연대 집회

반란으로 들끓는 중동

튀니지에서 벤 알리가,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가 쫓겨난 뒤, 모든 — 서방 정부의 입장에서 ‘우호적’이건 ‘적대적’이건 — 중동의 정권이 확산되는 혁명 운동의 도전을 받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경찰이 한 청년을 구타한 뒤 많은 사람이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경찰서를 포위했다. 이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다.

사람들은 “시리아인은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라크 남부에서는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보안군과 충돌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집권당 축출을 요구하며 거리

로 나섰다. 항의 시위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모로코의 탕지아에서는 군중이 경찰서와 프랑스인 소유 기업들을 공격했다. 이것은 공공설비를 한 프랑스 회사에게 팔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이었다.

지난주 모로코 청년들은 왕궁에 진입하려 시도했다. 청년들은 더 많은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하고 있다.

예멘의 목격자 보도를 보면, 아덴 지역에서 최초로 수천 명이 알리 살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알리의 특별보안군이나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덴의 주요 은행 경영자는 구타당한 뒤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났다. 역시 이 은행 고위 임원인 그의 네 아들도 강제로 쫓겨났고 노동자들이 은행을 점수했다.

국영 전기 공사의 경영진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사람들은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대폭 오른 것이 부패한 경영자와 정부 관리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자기 임금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가구 공장, 항만국, 수도국에서는 경영자와 경영자에게 부역한 사람들이 쫓겨났다.

사이먼 아사프와 알리스테어 W

이렇게 생각한다

‘혁명’이 진군하고 있다

위의 지도가 보여 주듯이, 튀니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반란의 물결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휩쓸면서 이란에까지 도달했다.

튀니지의 독재자 벤알리와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쫓겨났다. 빈곤과 좌절된 기대에 고통받는 대중을 30년 동안 지배해 온 카다피같은 다른 독재자들은 간신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운동에 직면해 정권을 중상당수가 미국, 영국과 서방 정부의 중요한 동맹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왕조와 독재자들은 수십년 동안 자기 국민보다 열강 ‘형님들’에게 봉사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바레인에서도 저항이 분출하면서 서방 열강들은 또 하나의 동맹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뉴욕 타임스>는 바레인을 “미국 안보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바레인은 미국 제5함대의 근거지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바레인 반란을 보면서 걱정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겨우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전략적 이익에서 최고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 가운데 20퍼센트가 매장돼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2천6백만 명 중 2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며, 청년 실업률은 40퍼센트에 달한다.

전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은 지금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위가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시위대는 총탄 세례와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나마와 벵가지 거리에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심지어 가장 강력한 군대도 자기 때를 만난 사상이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혁명’은 자기 때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외부 개입이 아니라 거리의 민중에게 답이 있다

리비아와 바레인 정부가 시위대를 공격한 것은 전 세계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서방 정치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리비아와 바레인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바로 서방 정부, 특히 미국·영국 정부에게 산 것이다.

더구나, 미국·영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전투기로 폭격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세력들이 중동을 지배해 왔다. 서방 제국주의는 중동 문제의 일부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19세기에 당시 가장 강력한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무력을 사용해 중동

을 정복했고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정부를 세웠다.

제국주의는 자기 이익에 맞춰 이 지역의 국경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리비아와 바레인의 참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서방 정부를 믿지 않더라도 중동의 다른 나라가 개입해 학살

을 멈춰 주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나라 지배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탄압과 학살의 해결책은 거리의 민중에게 있다. 제 아무리 ‘인도주의’를 부르짖을지라도, 외부 개입은 답이 아니다. 민중의 행동만이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바레인을 뒤흔들고 있는 대중 항쟁

2월 14일 소박한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왕정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중 항쟁으로 발전했다. 바레인 여성과 청년 등이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과 군대를 앞세운 국가의 잔인한 탄압이 오히려 운동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수십 명이 죽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전투로 병원은 부상자로 넘쳤고 분노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쉬지 않고 부상자들을 돌봤다.

경찰은 주로 영국제인 고무 총탄, 실탄, 최루탄을 사용해 많은 시위대를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들을 보면, 경찰이 인도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들은 시위대의 뒤를 쫓았고 닥치는 대로 총을 쏘고 구타했다. 군은 감옥에서 모집한 용병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2월 18일 수도 마나마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 정부 저격수와 탱크 등은 저항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으려 시도했다.

이날 밤에만 수십 명이 죽었다. 청년들은 밤새도록 경찰과 대치했다. 토요일 아침에 군대가 철수하자 시

위대는 진주광장을 되찾았다. 시위대는 방어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들은 모임을 열고 정부에 제시할 요구를 결정하려 한다. 권좌를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는 알 칼리파 왕은 2월 22일 야당 그룹들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정치범 석방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이런 조처는 저항을 사그라들게 만들지 못했다.

선 러덕



왕정 하야를 요구하며 싸우는 바레인 민중들

바레인 - 억압의 역사

작은 섬나라인 바레인이 대중 항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시아파들은 자유주의자와 급진 수니파들과 손을 잡고 수니파 왕실이 자행하는 정치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안 근처에 있는 바레인의 인구는 80만 명이지만 이곳에는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다. 바레인은 그동안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권에 의해 통치돼 왔다. 이 정권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영국은 1백 년 이상 바레인 정치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1932년 석유가 발견된 뒤부터 석유는 이 나라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당시에 영국인 고문 찰스 벨그레이브는 바레인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

그는 저항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을 감독했고 수니파와 시아파를 이간질했다. 영국과 바레인의 '특별 조약'은 1971년에 종결됐지만 영국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은 바레인에 무기를 제공했고 BP를 포함해 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풍부한 석유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했다.

바레인 항쟁은 맥락없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아니다.

바레인 인티파다(항쟁)는 1994년

에 시작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와 손을 잡고 변화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이를 잔인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바레인 인티파타는 2000년까지 지속됐고, 정부는 저항세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제스처로 2001년 국가행동헌장을 제정했다. 그러나 억압과 빈곤은 계속됐다.

2005년에는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파업 물결이 벌어졌다. 노동자들 —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 은 적절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일하기를 거부했다.

선 러덕

공지에 몰린 예멘 독재자

예멘 민중이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의 하야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30년간 권좌를 유지한 살레는 이에 대응해 자신이 2013년 물러설 것이고, 많은 이가 대통령 후계자로 의심한 그의 아들에게 권좌를 넘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살레의 보안군과 깡패 들은 계속 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다.

2월 20일에 남부 도시 아덴에서 경찰은 17살 소년을 살해했다. 그는 이번 시위가 시작된 후 아홉 번째 희생자였다.

홍해와 아덴만 입구에 위치한 예멘은 수에즈 운하에 진입할 때 거쳐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 정부는 살레를 중동의 중요한 동맹으로 여긴다.

최근 예멘의 시위 물결은 다른 중동 국가의 저항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살레 정권은 전부 터 저항에 부딪쳐 왔다.

지난해 예멘 남부에서 수백만 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압됐다. 1990년 이전에 예멘은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분리돼 있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예멘을 지원했고 남예멘은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둘은 통일됐지만 1994년에 내전이 발생했다.

그 결과로 사나에 기반을 둔 북예멘 정부가 남예멘을 지배하게 됐다.

지금 벌어지는 항쟁의 중요한 특징은 저항의 움직임이 예멘 남부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위는 사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즉, 살레의 부패하고 잔인한 정권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다.

팀 벨슨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가격 : 16,000원

구독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특집 지금의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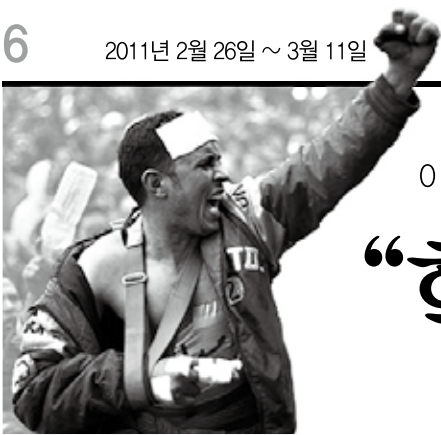
-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_ 김하영
- 금융세계화론 비판 _ 강동훈
- 진보 교육감 탄생과 교육운동의 쟁점 _ 정진희
- 긴축의 정치학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 전략과 전술의 기초 _ 최일봉
-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_ 김민식
- 새 상설연대체 - 한국진보연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인가? _ 최영준
- 해방정국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전선 _ 한규한
-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_ 트로츠키

현대 진보사상 조류
니코스 폴란차스의 정치 이론 비판 _ 콜린 바커

서평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결정적 한 가지 _ 정종남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 _ 장호중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예측 _ 찰리 호어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시장을 떠나서 학교를 살리자! _ 김성보
<제 게바라, 혁명적 인간>
신화에서 걸어 나온 인간 게바라 _ 한수영
<이미지 - 시각과 미디어>
프레임의 안과 밖을 모두 보는 법 _ 최유진



이집트 사회주의자들

“혁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직면한 문제에 관해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이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주디스 오어에게 말한다.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집트의 사회주의자와 무슬림형제단을 포함하는 야당 세력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비밀 조직만 활동이 가능해 보일 때도 있었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번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들이 조직을 유지한 것은 이들의 용기, 끈기, 정치 덕분이었다. 그동안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한 투쟁에 참여해 왔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반전 운동, 카이로 반전평화 회의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번 혁명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그들은 호스니 무바라크에 맞선 저항의 중핵으로 부상한 청년 운동과 성장하는 노동자 투쟁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주의자와 활동가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이번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1월 25일 ‘분노의 날’은 원래 대중적 분노의 대상인 경찰을 기리는 국경일이였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해 청년 단체, 활동가와 정치 조직들은 이집트 전국에 시위를 호소했고, 이것이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혁명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분노가 표출되게 하는 데는 정치 조직들의 고된 활동이 필요했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전진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은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집트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이 조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집트 사회주의자인 모시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 개혁을 위해 싸웠습니



사진 제공: Hossam el-Hamady

파업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이집트 석유·가스 노동자들

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동자 임금 인상과 실업 문제 해결 같은 사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우체국, 철강, 운수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들은 그런 사회 개혁이 어떻게 정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투쟁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순적입니다. 지금까지 합법적 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제약 때문에 아직 노조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위원회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은 아직 완전히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모시는 이렇게 말했다.

“무바라크의 국가 기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활동가들이 거미줄이라 부르는 밀고자들의 네트워크는 파괴돼야 합니다.

“우리가 즉석에서 타흐리르 광장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도 비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다음 단계로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건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와 좌파들이 그것의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합니다.”

라쉬드는 노동자 투쟁이 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열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혁명은 노동자 투쟁의 상승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파업들은 단지 무바라크를 제거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바라크가 물러나도 노동자 투쟁 물결이 반드시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혁명은 노동자의 독립적 투쟁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 투쟁은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계엄령 해제, 실종자의 행방에 관한 조사 등은 거리를 잠시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무코타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계속 그랬죠.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혁명을 전진시키는 생각에 개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바라크를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요구에 관해 논의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그 요구를 쟁취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부패와 치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통치 엘리트들과 대다수 이집트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빈민과 노동자를 위한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투쟁하는 대중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감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대중은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번역 김용욱

이집트 노동자 투쟁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

얼마 전 이집트 독립노조인 재산세무 공무원노조 위원장 카말 아부 아이타가 전 세계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레프트21> 50호 ‘우리를 죽인 총알은 미제입니다’ 참조).

‘다함께’는 이런 호소에 답해 한국의 여러 진보 단체들에게 연대 성명과 메시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운 위원장을 비롯해 개척자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전국노동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 나눔문화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월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이집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금속노조 대의원 14명도 2월 28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이집트 노동자 투쟁 지지 결의문을 현장 안건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안에서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연대할 것”이라며 “이집트 노동자들이 독재자와 사장들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일부 현장 대의원들도 이 같은 지지 결의문을 대의원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금속노동자의힘’도 총회에서 성명을 채택했다.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는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박성환

혁명은 불의에 반대하는 분노의 함성이다

2월 19일 파업 노동자 수만 명을 대표하는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주요 활동가들이 카이로에 모였다.

그들은 공통 요구를 담은 강령을 작성하고 행동을 서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가들은 모임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혁명이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가져 오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적 자유가 없다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투표권은 빵을 먹을 권리의 부속물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내놓은 강령의 내용은 호스니 무바라크가 하야하기 전 몇 년 동안 벌여졌던 파업 물결에서 제기된 가장 급진적인 요구들보다도 훨씬 포괄적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최대임금이 최저임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강령에는 투쟁하는 계약직 노동자



사진 제공: Hossam el-Hamady

타흐리르 광장에서 무바라크 퇴진에 환호하는 이집트인

들의 요구도 담겨 있다. 그들은 임시 계약의 폐지, 모든 육체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농민과 전문직 등에 대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친정부 노조연맹인 이집트노조연맹의 해체다. 이 연맹은 옛 집권당과 무바라크 정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축 가운데 하나였다.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

* 모든 사유화된 기업의 재국유화, 악명 높은 사유화 계획의 폐기.

* 국유기업을 맡아먹고 팔아치우려는 목표 아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부패한 관리자들의 전원 퇴출.

*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빈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 통제 부활.

* 파산한 정권의 잔존 세력에 맞서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전체 이집트 노동자들이 파업, 점거, 평화적 시위를 벌일 권리 보장.

이 강령에 서명한 활동가들 중 일부는 1월 25일 타흐리르 광장에서 새로운 독립노조 연맹을 결성한 노조들의 회원들

이다.

알파이움과 하와미디아의 설탕 공장 노동자, 대중 교통 노동자, 투라 시멘트 노동자, 약사 노동자, 우체국 노동자, 우마르 에펜디 백화점 노동자, 재산세무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 대표 40명이 이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과 선언문은 이집트 노동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보 전진이다. 주요 노조들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혁명의 사회적 목표를 쟁취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파업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서로 협력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요구는 현존 자본주의 체제의 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앤 알렉산더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레온 트로츠키의 혁명적 유산 ③

미래를 위해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켜내다



이 시리즈는 레닌과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고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트로츠키의 유산을 다룰 것이다. 이 시리즈의 필자인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대학교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의 저자다.

스탈린주의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가 반혁명적 구실을 한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정책들을 비판했고, 나중에 제4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는 혁명적 대안을 건설하려 노력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일국사회주의'란 관념 때문에 해외 공산당들을 그 나라의 혁명적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트로츠키는 지적했다.

오히려, 러시아 지도자들은 해외 공산당들을 소련의 "국경 수비대"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 공산당들은 주로 러시아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줄 친구—특히 자본가와 노조 관료들—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때문에 스탈린은 1920년대 터져 나온 두 거대한 노동계급 투쟁—영국과 중국 투쟁—을 배신했다.

1926년 영국에서 총파업이 벌어졌을 때 노동조합회의(TUC) 지도자들은 이 투쟁을 배신했다. 그들은 파업 시작 9일 뒤 파업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아직 아무런 양보를 얻지 못했음에도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영국 공산당은 이런 배신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조직하지

못했다. 영국 공산당이 당시 러시아 정부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하길 꺼렸기 때문이었다.

1925~27년 중국에서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이 폭발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이 운동을 지도했다.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에게 노동자 운동을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에 종속시키라고 명령했다. 스탈린은 중국에서는 자본가 권력이 가능하지 노동자 권력 탄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1927년 4월 국민당은 자기 동맹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대학살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 활동가들뿐 아니라 최고의 노동계급 투사들도 목숨을 잃었다.

트로츠키는 이 두 사례를 상세하게 비판했다.

“사회파시스트”

그러나 파시즘에 대한 스탈린주의 정책은 앞선 사례들보다 더 큰 재앙을 낳았다.

1920년대 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때,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강제 공업화와 농업 집산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농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재앙적 정책의 진면모를

감추려고 스탈린은 사회주의로의 즉각 이행 같은 극'좌파'적 미사여구를 남발했다.

또한,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이 사민당 공격에 집중해야 한다며, 말로만 좌파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스탈린의 명령으로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민당을 “사회파시스트들”이라고 불렀다. 독일 공산당은 나치 위협에 맞서 사민당과 손잡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독일 노동계급은 분열해, 효과적인 저항을 벌일 수 없었다. 히틀러는 1933년 큰 저항 없이 권력을 잡았다.

독일 노동자 조직들이 분쇄됐고, 전 인류가 그 대가를 치렀다.

트로츠키는 터키 망명 중에 작성한 몇 편의 탁월한 글에서 당면한 위험을 경고하고 파시즘에 맞선 노동자 공동전선을 꾸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인 파시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의 파시즘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탈린은 1933년부터 나치가 위협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도를 1백80도 바뀔 영국과 프랑스 정부와 동맹을 결성하려 했다.

스탈린은 각국 공산당들이 '인민전선'을 결성하고, 노동자 운동이 자본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술을 채택하라고 종용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또 다른 재앙을 낳았다. 1936년 장군 프랑코가 파시스트 쿠데타를 일으키자 노동계급은 봉기로 맞섰다.

스페인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가들을 살해하는 것을 포함해 온갖 방법으로 이 혁명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노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농민들이 결집해 토지 몰수에 나서지 못하면서 결국 파시스트들이 승리했다.

이 기간에 트로츠키와 그의 가족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의 잔인한 중상모략에 시달렸고, 서방 엘리트들은 그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지키려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진정한 혁명 운동을 건설하려 애썼다.

트로츠키는 자신이 1930년대에 쓴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라고 적었다. 왜냐하면 이 저작들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이 작업을 해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때, 우리는 트로츠키의 어깨 위에서 있는 것이다.

번역 김용욱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공무원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박탈에 항의해 위스콘신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대

사진 제공 <소셜리스트 위커>

미국 위스콘신에서도 반란이 시작되다

미국의 공공 부문 노동자 수만 명이 위스콘신 주의 주도(州都)인 매디슨의 거리들을 봉쇄하고 있다.

그들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스콧 워터에게 주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주지사의 계획에 반대하며 주 상원 의사당을 점거하고, 요구 사항을 쟁취할 때까지 의사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 투쟁은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에 당선한 후 미국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다.

공화당이 장악한 위스콘신 주 상원은 2월 17일 위커가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수천 명이 법안에 반대하며 상원 의사당을 포위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자 공화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소방관, 경찰, 교사, 간호사, 철강 노동자, 연금생활자, 학생 약 3만 명이 중식 집회에 참가했고, 저녁 집회에는 또 다른 2만 명이 참가했다.

월요일에는 많은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주 상원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2월에는 주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긴축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했다.

의사당 점거 투쟁에 참가한 시거드 미멜포트는 <소셜리스트 위커>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지사 위커가 노동조합을 박살내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은 즉시 시위를 벌여서 반격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시거드는 2월 18일 상원 의사당 점거 현장으로 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명 용지를 들고 의사당으로 모여든 수천 명이 원형 건물 중앙에 집결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위층의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거나 팻집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당을 빠져나가는 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커는 지난해 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했다.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보수파로 엄청나게 부유한 석유 재벌인 코치 형제가 위커에게 정치자금을 대 줬다.

보수 우파인 티파티(Tea Party)와 아메리칸 머조리티(American Majority)

— 우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시키는 보수적 활동가 단체—가 위커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와서 의사당 점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노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시위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불행히도 노동조합은 위커가 요구한 연금과 복지 삭감 방안에 이미 동의했다.

그러나 위스콘신 노동자들이 1959년에 쟁취한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위커가 공격한 것 때문에 주 전체에서 운동이 촉발됐다.

더구나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에서도 의사당 봉쇄와 연좌농성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앞으로 계속될 투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번역 이수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이집트 혁명에서 한국 기업의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가?

최근 <민중의 소리>는 이집트 혁명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아CIS팀 김용석 팀장의 기고글 ‘이집트 시민혁명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및 대응전략은?’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이집트 혁명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액이 “총 2천5백70만 불”이라며,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을 열거하며 “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제는 ... 공공기관에서부터 일고 있는 파업”이라고도 했다.

이런 분석이 이집트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는 한국 민중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가. KOTRA 김용석 팀장의 분석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기업 손실액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며 파업을 비난하는 주류 언론들의 분석을 고스란히 이집트에 적용한 것이다.

<민중의 소리>는 이집트 혁명 연재 기사에서 저임금과 고물가 등이 가한 경제난이 이집트 혁명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 <민중의 소리>가 이집트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윤 추구에 골몰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사실 <민중의 소리>에 실린 이집트 혁명 연재 기사의 시작도 관조적이다. 예를 들어, 연재 기사 중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서도 여러 교수들을 인용하며 이런저런 가능성을 검토할 뿐이다.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해 이집트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과제가 있으며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가 거의 없다.

이런 문제점은 <민중의 소리>가 국제주의가 아니라 일국적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이며, 최근 들어 주류 언론의 ‘중립성’을 쫓아가면서 문제점이 더욱 강화된 듯하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고 그것의 전진을 바라는 입장에 분명하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중의 소리’라고 부를 수 없다.

강동훈

팔레스타인 해방의 열쇠도 카이로가 쥐고 있다

존 로즈 유대인 사회주의자, 중동 문제 전문가

이집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을 타도하고자 거리에 나선 바로 그 시점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실로 절묘한 타이밍이다.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팔레스타인 민중을 버렸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훨씬 더 엄청난 지도력이 이집트 혁명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가자 지구에 사는 학생인 모하메드 라바솔리만은 ‘일렉트로닉 인티파다’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를 비롯한 가자 지구 청년들은 마치 이집트 혁명이 몸소 참여하고 있는 듯이 스스로 그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끼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혁명인 양 이집트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

“천구 한 명은 내게 말했다. ‘이번 인티파다(항쟁)는 아랍인들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이다. 이집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집트인들의 자유가 곧 나의 자유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집트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 자지라〉와 〈가디언〉에 유출된 수천건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부 문건들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부항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전략에 내재한 근본적 결함 때문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이 나머지 아랍 세계의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우를 범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기에는 너무 힘이 약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 전체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나약함도 바로 이런 오류에서 비롯했다.

어처구니없는 나약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주도해 온 파타다. 팔레스타인 문건이 공개된 것은 파타에게 이후 말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이집트의 반란은 이들에게 더 한층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한 동안 억눌려 있었던 아랍 민족주의는 이제 수면 위로 분출해 나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새로운 세력이기도 하다.

이집트 혁명의 결과는 팔레스타인 지도부 전체(세속적 분파와 민족주의 분파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조직된 정치 세력 중 더 급진적인 축에 속하는 하마스는 이집트 혁명에 연대하는 시위를 자제시켰다.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사태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하마스의 모태는 무슬림형제단이다. 하마스는 지금도 무슬림형제단과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고, 이 점이 하마스의 행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타는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초창기인 1960년대 말에는 아랍 정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요르단에서는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를 구축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 ‘검은 9월’에 요르단 왕정이 이들을 분쇄한 뒤로 파타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랍 국가들의 단결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는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자란 경험은 클리프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줬다. 당시 영국 제국은 아랍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무자비하게 억눌렀고 시온주의(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운 식민화에 열을 올렸다.

영국 제국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막에 매장돼 있는 석유를 가장 싼 값에 퍼오는 것뿐이었다.

클리프는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아랍 세계의 해방은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둘째, 해방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통한다.

이집트는 오랜 세월 동안 아랍 세계의 맹주 국가였다. 아랍 국가 중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산업과 수준도 가장 높다. 그러므로 아랍 세계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도 이집트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모든 계급(지배 계급, 농민,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종주국인 셈이다. 이집트의 시위와 반란과 혁명이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이집트를 지배하다가 1952년에 한 무리의 민족주의 군 장교들이 영국의 폭두카시 정부를 몰아낸 뒤로 이집트에 대한 장악력을 잃었다.

이 장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떠오른 가말 압둘 나세르는 이집트의 독립을 천명하고 아랍 세계의 존엄과 금지를 회복하고자 했다. 이에 서방 세계는 위협을 느꼈다.

당시 신생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집트 죽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부린 전략은 추악함의 극치를 보여 줬다. 자국이 유대인 국가라는 점

“

이번 인티파다는 아랍인들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이다. 이집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집트인들의 자유가 곧 나의 자유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2010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구호선 공격에 항의하는 이집트 시위대

을 이용해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까지 냉혹하게 희생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벤 구리온의 지휘를 받아 이스라엘 군 정보국은 극소수의 이집트 유대인을 설득해 그들로 하여금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 폭탄을 설치하게 했다. 비록 폭탄범들은 범행 전에 검거됐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다.

사건의 여파로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가 험악해졌고 이집트 내 유대인 사회는 파탄 났다. 이는 나세르가 초기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를 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비극적인 일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려던 나세르의 의지도 꺾어 놓았다(일부 역사가들은 벤 구리온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사태가 일어났다.

1956년 나세르는 영국 수중에 있던 수에즈 운하를 장악해 20세기 아랍 세계의 가장 중요한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지위를 굳혔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스스로 천장 줄을 당겼고, 나세르는 이슬람주의 운동을 확고하게 굳혔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나세르를 파멸시키기 위한 합동 군사 작전을 펼쳤다. 결과는 실패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와서 결말과 다음 기회를 노렸다.

그 다음 기회는 1967년에 왔다. 이때 일어난 이른바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나세르와 나머지 아랍 세계에 안겨 준 패배는 너무나 심각하고 굴욕적인 것이어서, 아랍 정치는 이때의 충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이집트 혁명이 이를 바뀔 놀길 기대해 본다).

클리프는 나세르의 패배를 예견했다. 그는 반제국주의 지도자로서 나세르가 지닌 강점을 인정했지만 그가 지닌 치명적 약점도 간파했다. 나세르는 군 고위 출신으로서 대중보다 지도자들을 신뢰했던 것이다.

나세르는 다른 아랍 국가의 노동자·농민 대중에게 행동을 호소하길 꺼렸다. 게다가 소련과 동맹을 맺은 탓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돼 재앙을 낳았다.

이집트는 1973년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는데 이 사건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강화된 동맹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줬다.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주는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 미국은 베트남 전에서 자국이 고전하던 것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에 크게 감명받았다.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서 이스라엘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먹히려면 이집트를 완전히 빼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1973년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무기를 아낌없이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의도가 “아랍 공동전선을 깨뜨리는 것”에 있었다고 말했다.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미국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을 때 그 의도는 정확히 실현됐다. 이집트가 아랍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던 아랍 국가들의 공동전선이 깨진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은 이집트에 군사·경제적 원조를 펴부었다. 중동 지역에서 저항을 분쇄하는 일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랍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를 활용한다는 ‘부트랙’ 전략의 일환이었다. 아랍 민족주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주의 운동들이 분출해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 이슬람주의 운동들을 때려잡는 데 앞장서 온 것이 바로 끔찍한 고문 전력으로 악명 높은 이집트 국가라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트랙’ 전략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지배자들이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부와 권력을 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역사, 문화, 정치, 정제를 쥐락펴락하고 억압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그토록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집트에서 마침내 폭발했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그동안 긴장이 조금씩 커져 왔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총사령관인 퍼트레이어스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군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도부에 사소한 양보라도 해 주길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마저 거부했다.

미국은 이제 이집트의 “민주 세력”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 이들이 집권하면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어서 이스라엘이 재빨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을 때 하마스가 라파 지역 국경을 개만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무기를 들여올 위험이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집트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든 진보적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입지는 크게 약해질 것이다. 지난 30년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특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와 평화 협정을 맺은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축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 타임스〉의 중동 특파원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미국의 주류 시온주의자인 그는 요즘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주에 쓴 칼럼에서 프리드먼은 이스라엘의 어느 장성에게 들은 말을 인용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구상해 온 모든 것이 이제 더는 의미 없게 됐다.” 프리드먼은 칼럼을 다음의 말로 끝맺었다.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의 일에서 최대한 발을 빼야 한다.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이며, 길을 비켜라.”

반역 천령록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이집트 민중

이라크 전쟁이 민족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포장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 지역의 민족주의의 확대가 자신들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에 달려 있다고 선전해 왔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독재 왕가나 이집트 무바라크 독재를 후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튀니지에서 본 알리를 축출한 혁명이 중동 각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란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무바라크가 물러나자, 지배자들의 선전은 여지없이 깨졌다. 중동에서도 민주화는 대중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혁명이 생생히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했는가? 이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로 ‘질서 있는 전환’을 추진하면 되는가?

그러나 중동의 민중은 단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도입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독재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체제가 낳은 불평등과 경제 위기 때문에도 고통을 겪었다. 대중은 엄청난 실업과 가난에 허덕였다. 튀니지 혁명에서 ‘행과 교육과 자유’가 주요 요구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단지 기존 정치 권력을 타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평등과 가난을 낳는 근원인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에도 도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사회 집단은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은 파업 등 집단적 행동을 통해 기업주들의 이윤 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민주적 조직을 통해 생산 수단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대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을 재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회 집단이다.

문제는 선진국보다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중동 지역에서도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체제 변혁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트로츠키

이것은 새로운 물음이다. 이미 1백 년 전 즈음 당시 후진국이던 러시아 사회의 변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런 물음이 제기됐고 물음뿐 아니라 답도 제시된 바 있는데, 바로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이 그 해답이다.

트로츠키의 주장의 핵심은 러시아의 후진성에도 러시아 노동계급은 서구 노동계급보다 먼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사상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다.

연속혁명론은 몇 가지 상호 연관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상대적 후진국에서는 정치

적·시민적 권리 제약, 제국주의 지배, 농업 문제, 노동계급 조직 불인정 등을 해결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가 있다.

둘째, 상대적 후진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후진적 산업과 선진적 산업이 병존하고 그것도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그 결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제국주의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돼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변혁에 나설 수 없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 해결조차 수행하지 못한다.

넷째, 후진국에서도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노동계급이 생겨났고, 비록 인구의 소수라 해도 비교적 집중돼 있다. 자본주의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도 지도할 수 있다.

다섯째, 노동계급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연결시킬 수 있다. 노동계급은 권력 장악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고 연속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

여섯째, 후진국에서 노동계급은 권력을 장악해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 혁명을 독자적으로 완수할 수는 없다.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돼 적어도 몇몇 선진국에서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 성공을 거두야 한다.

중동의 연속혁명

오늘날 중동의 민중 반란은 트로츠키가 정식화한 연속혁명론 중 몇 가지 정식을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가 있다. 제국주의 지배와 독재에 시달려 온 이 지역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극도로 제약됐으며, 독립적 노동계급 조직도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이집트는 농업 문제 해결도 과제인데, 1950년대에 이른 토지개혁의 성과를 무바라크가 되돌린 바람에 토지개혁으로 재분배된 땅을 옛 지주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중동 혁명의 동력은 부르주아 사회의 변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런 물음이 제기됐고 물음뿐 아니라 답도 제시된 바 있는데, 바로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이 그 해답이다.

트로츠키의 주장의 핵심은 러시아의 후진성에도 러시아 노동계급은 서구 노동계급보다 먼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사상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다.

연속혁명론은 몇 가지 상호 연관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상대적 후진국에서는 정치

연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까지는 연속혁명론의 정식이 고스란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나머지 정칙들, 즉 권력 장악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남았다. 독재자를 쫓아내는 데 성공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노동계급은 권력 장악에 나설 수 있는가?

잠재력은 있다. 노동계급 권력의 원천은 생산 현장과 지역 사회에 대한 통제에서 나온다. 노동계급은 투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민주적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존 경영진 구성을 축출하거나 “노동자와 기술자들로 사임된 새로운 경영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을 추구하는 등 사장들의 통제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급 투쟁은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무바라크를 타도한 정치투쟁이 이제 자본의 지배에 도전하는 경제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분석하면서 혁명적 대중파업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현재 이집트 노동계급 투쟁의 패턴도 그 점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중 권력 기관이 광범위하게 등장할지,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할지 현재로서는 짐짓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몇 년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실패한다면, 1920년대 독일과 1930년대 프랑스 사회 운동에 그랬듯이 반동 세력이 다시 실패를 저 혁명의 성과와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하려 들 수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은 부분적인 자유화는 도입하려 하지만 뿌리 깊은 제국주의 지배에 맞선 투쟁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동의 심장부인 이집트에서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다면, 중동 전역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에 지주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서 혁명을 낳았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속혁명론은 자동으로 실현되는 공식이 아니다. 행위자들의 의식적 노력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은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과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노동계급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혁명적 정치 조직이 미리 건설돼 있어 아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병호

새로 나왔습니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일렉스 캘리니코프·이집트 사회주의자 및 지음, 책갈피, 8000원, 176쪽

지금 세계 지배자들은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반란이 ‘질서 있는 전환,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지’ 비관다. 그러나 이런 이른바 ‘민주화 이빨’을 통해서만 이집트 민중이 염원하는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성취할 수 없다. 민주주의, 경제 정의 문제의 해결, 제국주의의 중동 억압 종식 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투쟁의 전면에 등장한 노동계급이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 책은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이 그런 혁명적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집트 민중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이집트 혁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미르크스주의 09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4900원, 128쪽

무슬림형제단은 왜 저항과 타협 사이에서 오락가락할까?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소책자는 이슬람주의가 반동적 파시즘이라는 견해와 진보적 반제국주의라는 상반된 견해 둘 다 틀렸다고 지적하며, 이란·수단·이집트·알제리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슬람주의의 진정한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한계를 보여 준다.



정치 단체가 노동조합운동에 방해가 되는가?

최근 건설노조에서 ‘정파 마녀사냥’이 벌어졌다.

노조 상근자 한 명이 임원진들과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 때문에 사퇴했는데, 일부 기계지부장들은 정치 단체인 ‘노동전선’이 건설노조를 좌지우지한다면서 ‘정파가 문제’라고 몰아간 것이다.

황당하게도 그중 일부는 정치 단체가 건설노조를 다 망쳐 놓은 것처럼 흥분했고, ‘상근자들이 정치 단체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퇴시켜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나는 이런 일부 지부장들의 주장에 반대해 논쟁했다. 도대체 왜 한 개인이 정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게 문제인지, 또 왜 노동조합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게 문제인지 되묻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일부 간부들은 ‘정치 단체가 노동조합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정치를 표방하고 실천하

느냐가 진정한 문제지, 정치 단체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일부 기계지부장들은 ‘왜 노동조합과는 상관없는 정치 단체에 휘둘려야 하느냐’거나 ‘왜 기계분과가 건설노조에 돈 대주고 몸 대줘야 하느냐’는 식으로 부른 주의를 드러냈다. 이런 제기는 건설노조가 기계분과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결합된 것이므로, 건설노조 지도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계분과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체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해 힘을 결집해야 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밖의 정치 활동과 노동자운동에 관련 맺어야 한다.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는 정치적이여야 한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병행할 때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정치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건설노조에만 시야를 가두지 말고 전체 계급 세력 관계를 조망하고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 단체에 가입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다함께’라는 좌파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을지 배웠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설노조 내의 정치 단체 활동가들이 이번 일로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정견에 따라 활동하길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재순 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타인가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때문이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배계급의 논리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진보적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잘 뜯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건설 현장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는 드물다. 철근·목수 노동자들은 1년에 반 가까이 일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20~30년 일한 기능공이라도 매월 받아가는 임금은 1백80만 원 정도다. 기능공이 아닌 비숙련 노동자들은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해도 1백50만 원 정도 받을 뿐이다.

수십 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 조건,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열에 한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 1년에 6백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열악



열악한 건설 현장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한 조건. 이런 건설 현장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한국인이 마다하는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기능공으로 성

장했다. 이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한 팀을 이뤄 형·동생처럼 서로 챙겨주며 팀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산업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이명박 정부는 외국 인력의 건설업 취업을 조절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 카드’를 발급해 이주노동자의 ‘불법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건설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내쫓아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힘든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보장받고 존경받는 것이다. 저임금과 형편 없는 처우에 대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분열 지배에 반대하고, 건설 현장의 한 축인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답이다.

김승섭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대의원

교육대학교 통폐합과 법인화에 맞서 싸울 때

얼마 전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 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에 총장이 와서 학생회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 총학생회장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기에 공주교대 학생회들도 민주노동당의 하부조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총장은 공주교대를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와 통폐합해 연합대학교로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999년에 공주대와 공주교대를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공주교대가 교육대학교 중에서 가장 소규모 도시에 있다며 통폐합하려 하지만, 이는 공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대학교를 순차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과정입니다.

연합대학교 법인화는 권역별로 지방의 국립대학교 몇 개를 구조조정하고 통합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화는 학교가 공공의 기관이 아닌 기업과 같은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연합대학교 법인화는 형식적으로는 통합 전 대학의 부총장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이 큰 대학에 일원화되고 효율을 앞세워 비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대폭 축소될뿐 아니라 외부인사라는 명목으로 학교 구성원이 아닌 정부의 관료가 참여하고, 의사결정의 중심이 학교구성원이 아니라 총장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학교재정이 사적 영리에 이용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학생들에게 더 전가할 뿐 아니라 영리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그 부담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영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와 사업들은 사회 전체와 학생



2007년 국립대 법인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교대생들

들에게 필요하더라도 폐기되기 쉽습니다.

교사 총원

교대생들은 교원 증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원 증원 요구는 교육재정 삭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좌절됐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전국교육대학교 투쟁 당시 경쟁률을 1.5 대 1 이하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 경쟁률은 3 대 1에 가깝습니다.

교원 증원 요구는 대중의 입장에서라도 반길만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교 통폐합은 교원 증원을 더 어렵게 합니다.

공주교대의 문제는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대학교육을 구조조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영리에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민중의 교육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질이 희생될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들도 점차 통폐합될 것이라는 공주교대 총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정책은 전국의 다른 교육대학교에도 적용될 것이고 다른 국립립대학교에서도 교육 시장화의 흐름이 가속할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육재정 삭감과 대학 구조조정에 단호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권기봉 공주교대 총학생회 집행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청년 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이 훌쩍 넘는 8.5퍼센트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올 1월보다 사정이 나았던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이 23퍼센트나 뛴다. 우리나라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 사회의 정치·경제 지배자들이 내놓는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엉뚱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기술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불일치하고, 고학력이 너무 많아 구직자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진 게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실용 중심의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고학력 구직자를 줄이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차치하고도 요즘처럼 자격증이다 여학연수다 하는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취업생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고학력을 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에게 낮은 근로조건과 저임금 등으로 차별대우하는 장본인은 기업들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이윤을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일자리 축소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제 위기 시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저임금의 비정

규직을 좀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경제 위기 때마다 노동자 해고와 높은 노동강도로 그들의 이윤을 보전하며 자본주의적 본능에 충실했다.

청년실업의 진정한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사장들의 지갑으로 가는 돈을 돌려 청년고용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면 된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4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살하고 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서 실업의 위기에 놓인 청년·노동자들이 투쟁했듯이, 우리도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각자의 요구를 가지고 함께 싸워야 한다.

이영일

이집트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간과해선 안 돼

무바라크가 쫓겨난 후 흥분 속에 신문 거리 판매를 하고 토론하던 중 이집트 혁명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 동지는 혁명이 경제 위기 및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맥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 성격보다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후 이집트에 다시 친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낮지 않고, 제국주의에 얼마나 타격이 갈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혁명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와 그에 맞선 투쟁은 지난 이집트 1백 년 역사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고, 따라서 “지금 무바라

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억압자에 맞선 이집트인들의 오랜 투쟁 역사의 일부”다. 일례로 1940~50년대에 영국 점령군과 친영 왕조에 맞선 대규모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졌고, 이후 나세르주의자, 무슬림형제단 등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랍민족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받아 왔다.

또, 이집트의 빈곤과 권위주의는 제국주의와 긴밀히 결합돼 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근린 공핍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해 이집트 민중의 삶이 더 악화됐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억압해왔고 이에 협조하는 무바라크 정부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강했다.

무바라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반감 속에서도 친미 정책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분리해선 안 된다.

특히 중동처럼 미국의 제국주의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 요충지에서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다.

또, 친미적인 무바라크를 몰린 후 운동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친미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순조롭게 친미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익진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3월 7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전북 버스 파업

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

전북 버스 파업이 80일을 넘겼다. 전주 시와 사측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월 11일 경찰·사측·용역 등은 합동 작전을 펴 각 작업장 차고지에서 차량을 빼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차고지들은 폭력 경찰 1천7백여 명으로 뒤덮였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연대한 동지들이 다쳤다.

전주시는 모든 정류장에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붙이고 아파트 방송을 하는가 하면, 최근엔 봉·반장을 동원해 반상회까지 조직해 여론 호도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대오 이탈도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에 버스 사업주들이 범법자 집단이라는 사실이 폭로됐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주시도 부패한, 믿지 못할 세력임이 드러났다. 그런 그들이 한때 교섭에 나와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을 말했던 것은 오로지 투쟁의 성과였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버스 사업주들의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런 속에서 최근 김완주 전북도지사과 송하진 전주시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버스 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사측을 압박하는 척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미 파업 기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번복한



2월 15일 전북 노동자대회

바 있다.

더구나 이들이 정작 하고자 한 말은 버스 운행률을 80~90퍼센트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합동 작전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대체 버스를 대거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전북 버스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은 대체 버스 투입에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최근 “대체 버스 투입은 불법”이라며 “이런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도 연대 확대를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 2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그것을 결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병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도부 사퇴 이후 투쟁의 과제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투쟁의 불씨를 끄려고 사력을 다해 대대적인 탄압과 야비한 공작을 펴고 있다.

사측은 1천여 명이 참가한 2월 12일 양재동 집회 이후 2차 투쟁에 탄력이 붙는 것을 우려해 관리자·용역을 동원한 집회 봉쇄, 해고·정직 등 대량 징계, 회유·협박 등을 퍼붓고 있다. 울산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활동가 네다섯 명만 같이 다녀도 용역 20여 명이 졸졸 따라다닐 정도다.

1공장의 협력업체 지성기업에서는 조합원 28명 중 24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현재까지 울산 공장에서 서만 1백50명 넘게 중징계를 당했다.

사측의 탄압은 조합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 출정식과 조합원 총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21일에도 6개 사업부 중 4개 사업부위원회에서 부당징계에 항의하는 부분 파업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합비 횡령 문제가 터졌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70만 원), 전 수석부지회장(1천4백만 원) 등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2월 22일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다.

그런데 조합비 횡령 문제를 폭로한 전지회 사무장(그는 사측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2월 초에 사퇴했다)은 비정규직 투쟁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월 11일 서울 현대차 본사 앞 상경 투쟁 대대적 탄압에 맞서며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는 “금속노조와 외부 단체 활동가들이 배후에서 투쟁을 기획·선동해 조합원들을 해고 위기로 내몰았”고 “또다시 2차 파업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전 사무장이 사측과 ‘공조’했을 것으로 의심했는데, 실제로 그가 사측 임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측과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지회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정몽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벌여 준 돈으로 비자금을 1천억 원이나 조성해 정치권에 뿌리고 8백억 원을 횡령한 자다.

물론, 조합비를 횡령한 일부 지도간부들을 두둔할 수 없다. 한 조합원의 말처럼 “노조를 지키고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쳐난 가지는 쳐내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다행히 지회는 2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의 바람대로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투쟁의 구실을 형성해야 한다.

정규직지부 이경훈 집행부도 비정규직지회의 혼란을 틈타 굴욕적인 양보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연대를 이어가야 하고, 투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의 결립들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적 주장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모승훈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체제 반대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던 거리 판매 경험

2월 18일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집트 혁명을 집중적으로 다룬 <레프트21> 50호 거리 판매를 했는데 준비해 간 신문 20부가 모두 동이 났다.

이곳은 신문 구입자들이 연락처를 남겨 주는 비율이 낮아서 고민이었는데, 이날은 신문 구입자의 절반인 열 명이 연락처를 남겨줬다!

왜 바귀었을까? 불과 나흘 전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진행했을 때는 줄어든 판매량을 놓고서 “이집트 노동자 파업과 무바라크 퇴진 이후 사태를 보면서 신문과 대중이 느끼는 관심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는 판매가 많았던 원인을 우리의 주장이 바뀐 것에서 찾는다. 2009년 창간 이후, 나는 줄곧 거리에서 신문을 권할 때 “반이명박 진보연론 레프트21”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레임덕이 분명한 지금 “반이명박”이라는 수식어는 이전만큼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2월 18일에는 판매 담당자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신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자고 했는데 이는 이집트 혁명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10면에 비중있게 실린 ‘반자본주의 연재’도 염두에 둔 것

이었다.

확성기를 들고서 스피치를 했던 나는, 단지 우리 신문이 이집트 혁명 소식을 다룬다는 주장만 하지 않았다. 그 혁명이 민주화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한국도 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죽음에 보여 주듯이 여전히 민중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자본주의 진보연론 레프트21”을 읽어 보라고 외쳤다. 홍익대 청소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스피치를 할 때도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의 모순과 연결시켰다.

신문을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구

입을 권한 참가자도 <레프트21>은 이집트 혁명과 체제의 모순을 들춰내는 신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 신문의 ‘빨간 색깔’을 더욱 자신있게 드러낸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 이집트 소식이 줄고 있지만, 이집트 혁명은 많은 이들에게 기존 질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비록 대안에 있어서는 부엌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더 공개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김종환

중동의 반란이 사람들을 깨우다

튀니지·이집트 혁명은 아랍 주변국의 파업압 민중에게만 자신감을 준 것이 아니다. 지금 중동의 반란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버렸거나, 자신감을 잃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깨우고 있다.

얼마 전 한국사회포럼에서 열린 ‘격동의 이집트, 중동의 민중반란과 연속혁명’ 청중토론 시간에, 한 노동자는 한동안 활동에 참가하지 못했던 동료 노동자가 이집트 상황을 보며 다시 활동에 결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지역활동에만 전념했던 한 활동가는 ‘<레프트21>의 이집트 분석 기사를 읽으면서 국제주의와 연속혁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토론회를 주관한 ‘다함께’의 회원이 됐다.

촛불세대에겐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사임은 대중적 저항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동시대의 사례다. 이들은 이집트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한국은 이집트 혁명처럼 돼 더 전진하지 못했는지를 두고 토론했다. 정치에 무관심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집트와 중동의 혁명에 관심을 갖고 지인인 ‘다함께’ 회원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대중 저항이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깨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다른 세계는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함께 싸우자고 제안하자.

김승현

이집트 혁명 - 야권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파업이 필요하다

최근 우연한 기회에 자주계열 활동가로부터 이집트 혁명에 대한 견해를 듣게 됐다.

그 동지는 ‘현재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엘바라데이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야권의 단결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무슬림형제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 동지의 주장은 야권이 단결해서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잘 치워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혁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슬림형제단은 독재자 무

바라크를 몰아낸 거대한 대중반란에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혁명 초기에 거대한 대중 반란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 소속 기층의 회원들이 반란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직전에는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시위대의 요구를 뒤로한 채 정권과 협상을 시작했다. 한편, 이집트의 ‘야권’은 질서 회복을 얘기하며 군부와 협상을 했고 과도내각에 장관으로까지 입각했다.

아직 이집트는 무바라크가 물러난

것 이외에 시위대가 요구했던 그 어떤 과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과 빈곤 심화, 엄청난 실업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마치 한국의 1987년처럼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만든 거대한 대중반란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고무하고 있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무바라크가 물러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노동조건의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가 제시한 약간의 온건 개혁을 받아들이면서 선거에 기대는 것은 혁명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더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염원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집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의 주제로 우뚝 서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금은 작업장과 학교,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혁명을 확산시켜 완전히 새로운 이집트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노동계급의 도전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재환



지난해 11월 7일 4만 명이 결집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 여성의 다수가 노동자인 오늘날, 여성차별적인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투쟁의 잠재력은 더 커졌다.

103주년 3·8 국제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과 해방을 향한 투쟁

최미진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부분이 이민자이자, 10대 여성이었던 이 노동자들은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심지어 18시간 동안 일했다.

견디다 못한 여성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작업조건과 임금, 노동조합 결성권과 투표할 권리를 위해 폭력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다. 이에 영감을 받은 독일의 사회주의자 클라라 제트킨은 국제사회주의 회의에서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삼아 해마다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그 후로 수많은 투쟁 덕분에 여성들의 삶과 의식이 향상됐지만 오늘날에도 여성들을 괴롭히는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49일간의 투쟁 끝에 승리한 홍익대 미화 노동자들의 외침은 오늘날 여성 노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

“요즘엔 여자들도 몸이 성할 때까지 일해야죠”, “우리가 아줌마라고 해도 부업이 아니고 가장입니다”라는 미화 노동자들의 말처럼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노동자로 살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퍼센트밖에 안 된다. 단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임금도 적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에서 비롯한 성희롱, 폭언에도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 하청업체, 홍익대학교

등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에게 “이년, 저년” 소리를 들으며 멸시받는다.

정부는 ‘여성 인력 활용’을 말하지만, 정작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보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는 ‘무상 보육’ 대상을 늘리고, 육아휴직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노동자들의 반응은 뜸뻍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필요에 너무나 못 미치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무엇보다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온 결과, 값이 싸고 보육의 질도 상대적으로 좋은 국공립보육

시설 비율은 겨우 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남녀 임금 격차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애도 볼 수 있다’면서 내놓은 유연근무제는 여성에게 반토막짜리 일을 하고 임금도 반토막만 받으면서 육아도 병행하라는 뜻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릴 뿐이다.

여성을 얼굴과 몸매로 평가하는 세태는 더 노골화되고 있다. ‘꿀벅지’, ‘베이글녀’처럼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섹시한’ 몸매를 강조하는 모델적인 단어들도 판치고 있다.

오늘날 여성은 뭘 하든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이 수술대 위에 오르

고, ‘살과의 전쟁’을 벌인다. 그러지 못하면 기죽어 지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섹시한 이미지와 벗은 몸은 상품 판매의 주요 수단이다.

지난해 말 28세의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가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에 시달리다 결국 거식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른바 ‘당당한 여성들의 시대’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

여성의 몸이 온전히 여성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는 낙태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 결정권이 필수적이다.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낙태를 처벌하는 시대와 상황에서도, 불리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계속 있어 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낙태를 묵인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낙태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낙태금지론자들의 낙태 고발 소동 때문에 한때 낙태 시술비가 수백만 원으로 치솟아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심지어 법원이 낙태한 한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다.

낙태 공격은 여성들의 애 낳는 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보수적 관념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3월 8일 여성의 날 집회는 여성을 옹호하는 이런 현실에 맞서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왜 여성차별은 사라지지 않는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지만, 왜 차별은 또 다른 얼굴로 여성들 앞에 놓여 있을까?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현재와 다음 세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안정적인 틀이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아끼고, 장시간 일하고, 헌신한다. 여성들은 무보수로 아이와 남편을 뒤흠라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듯이

경제 위기 시기에 국가는 알량한 복지마저 축소하곤 한다. 이것은 가족에서 주로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만약 이런 부담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성을 집안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창출했지만, 그런 풍요를 여성 대중의 해방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다. 국가와 기업들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데 드는 부담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는 가족에서 여성이 하는 구실을 강조하고, 양육과 집안일을 여성의 본업으로 여기게끔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온갖 여성 천대의 싸이여기서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차별의 뿌리, 즉 자본주의 운영 방식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적 풍요를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러시아는 지금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가난한 상태였지만, 노동자평의회는 동네마다 무료 탁아소와 공동식당, 세탁소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비록 국제적 고립과 엄청난 궁핍 속에 이런 실험은 중단되고 혁명은 번질했지만, 러시아의 경험은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혁명이 여성의 삶을 뒤바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21세기 여성해방

① 얼핏 보면 세계는 성별로 나뉜 것 같고, 성별로 따로 뭉쳐서 싸우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물론 여성이라면 누구나 받는 억압이 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똑같은 억압을 겪지는 않는다. 부자 여성들은 돈으로 억압을 완화할 수 있고, 저임금과 육아 문제로 고통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회의 폭대기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에서 큰 이득을 얻는다. 반면, 남성의 대부분인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희생양이다. 여성 주식 부자 1등인 '신세계' 회장 이병희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혹사한다. 반대로, 주로 남성인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홍익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연대했다.

여성차별의 뿌리가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계급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 다수가 노동계급이다. 여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노동자 고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정몽구야 수개월 동안 해외에서 놀다 와도 생산에 아무런 차질이 없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이 일손을 며칠만 멈춰도 당장 일간지 1면이 파업 손실 액수로 뒤덮인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

서 노동계급은 “뭉쳐야 사는” 집단이다. 자본주의는 성·성지향·인종 등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지만, 중요한 순간에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투쟁은 이런 과정을 촉진시키고 서로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지름길이다.

이번 이집트 혁명에서 타흐리르 광장을 지키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혁명 과정은 여성인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매일 24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집단적 기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무바라크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 파업 물결 속에는 여성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이 함께 투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여성차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대학가를 휩쓴 여성 미화 노동자의 투쟁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가 더는 나약하게 웅크리고 참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 특히 홍익대 미화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은 성별을 뛰어넘는 노동자·학생들의 연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투쟁 속에서 자본주의에 도전할 때,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Al Jazeera English

혁명에 나선 이집트 여성들 혁명은 여성을 둘러싼 조건도 변화시킬 수 있다.

103주년 3·8 국제 여성의 날 집회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 여성, 이제는 행동이다!

3월 5일 (토) 오후 3시, 시청광장

※ 집회 후 교과부 앞까지 행진 예정 (변경될 수도 있음)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 (고려대, 고려대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파업 출정식

3월 5일 (토) 오후 2시, 시청광장

다함께가 발행한 추천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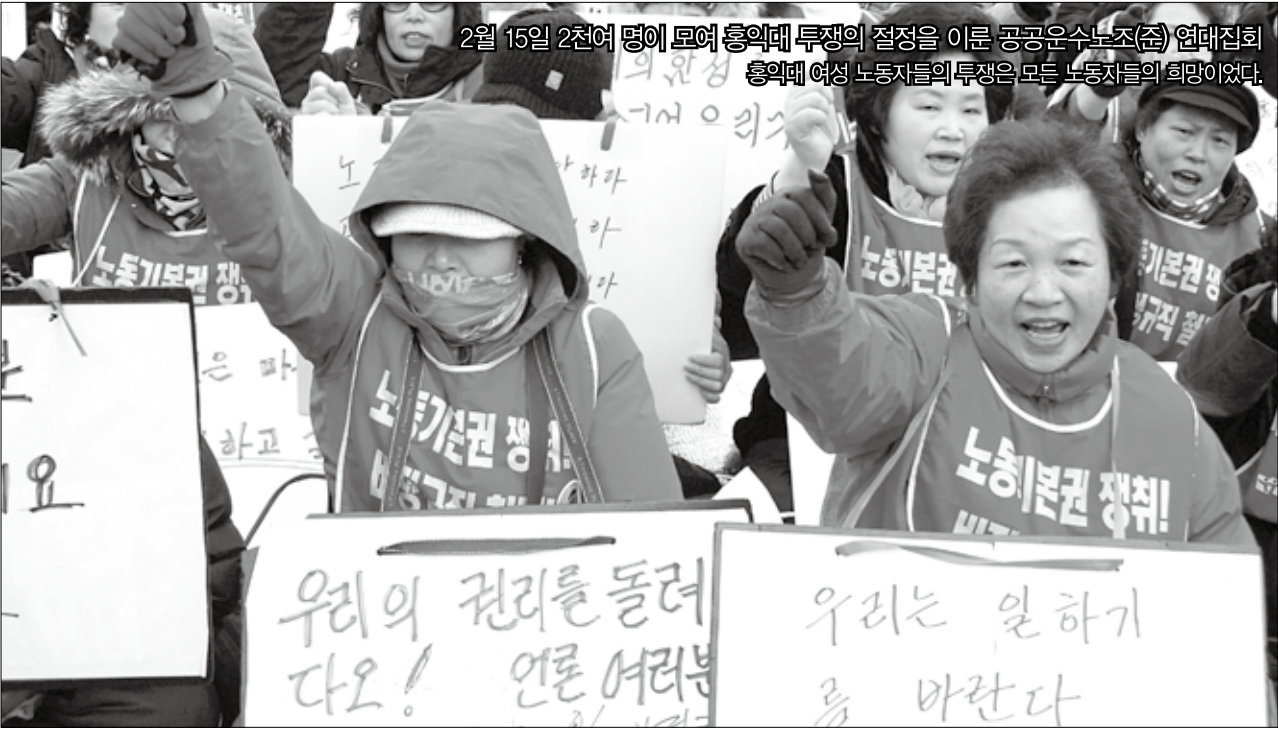
《국제 여성의 날》(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배따이들을 위한 여성 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주디스 오어 지음)

개정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정진배, 최미진 지음)

구입 문의 :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



진보노조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가 말하는 삶과 투쟁

최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부상하고 있다. 홍익대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아 고려대, 고려대 병원, 이화여대, 연세대 미화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원·경정장에서 발매원·매점원으로 일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이다. **고려대학교 병원 김윤희 현장대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투쟁에 대해 얘기한다.

“홍익대가 49일 동안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홍대 소식을 주시하고, 소장님이 아침 조회시간에 홍대 기사를 뽑아 왔더라고요.

우리도 5개월 전부터 ‘최저임금을 넘자’고 주장하며 집단교섭을 했고, 학교에 요구했어요. ‘최저임금으로 낙찰하지 말라. 우리는 생활임금[시급 5천1백80원,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일한 대가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냐. 우리가 고려대 구성원이고, 고대를 빛내 주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사람 취급해 달라’고 주장했죠.

병원은 노동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환자 분들이 용변도 제대로 못 보니까 오물도 흘리고, 약을 쏟고 언제든 우리를 불러 올려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설도, 추석도 없고, 크리스마스와

국경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하나도 없어요. 휴게실 하나에 23명이 콩나물처럼 들어가 서서 조화를 해요. 우리가 지친 몸 실 데는 없어요.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소장이 우리더러 ‘나이 들고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매일 조화를 시켜야 한다. 채찍을 들고 말처럼 몰아야 일을 한다. 법만 없으면 새벽부터 11시까지는 아침밥도 먹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말을 잘 듣지’ 하고 막말을 했어요. 진짜 이런 소굴이 어딴가요?

민주노총이 뭘지 몰랐지만 최소한 우리가 풀뚝 뭉치면 저런 사람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조가 생기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병원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어요.

여자들은 부업이니까 임금 적게 줘도 된다고 하지만, 무슨 부업이에요? 생업이지.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부업

고려대 병원
김윤희
현장대표



은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고, 돈 쌓아 놓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딴가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요. 남들 새벽에 고요히 자는데 우리는 지친 몸 일으킬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만큼 일의 강도가 세니까 우리는 소리 높여 병원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생활임금 받아서 은행 문턱 들락거리며 적금도 부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봐요. 30년 독재하다가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바뀌잖아.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



국민체육
진흥공단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로서 정말 감내할 수 없었던 건, 고객들의 언어폭력이었어요. 표를 대주면, 손을 딱 잡아요. 여자를 만져야 재수가 좋다고, 사람들이 돈 있으면 그 창구를 찾아서 욕을 해요. 반말은 기본이고, 구멍으로 침 뱉고.”(김성금 사무국장)

“표 위에다가 남자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서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표를 받은 직원이 손이 부들부들 떨려 가지고 ….”(이병진 조합원)

“그러면 그 손님을 쫓아내는 게 맞잖아

요, 근데 그거 항의도 못해요. 항의라도 하면 저희 탓이 되는 거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자고, 나쁜 손님은 격리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근데 해 줄 수 없대요.”(김성금)

“오히려 지점장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래요.”(이병진)

“그런데 이렇게 욕 먹고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르지 못해서 평가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로 발령도 받고, 해고도 돼요. 참고 일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상 줘야 해요.

다 정년이 65세인데 우리만 55세예요. 너무 나이 든 사람 앉아 있으면 보기 싫다는 거죠. 마사회는 진작에 시급제로 바꾸고, 젊은 대학생 애들로 갈아치웠어요. 완전히 상품 취급하는 거죠.

한 번은 애가 아프다서 통화하느라 1분

늦게 나왔는데, [감시카메라 화면을 캡처해] '자리 이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업무 마들이고 일하느라 애도 못 보는데, 일곱 살짜리가 아프다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해고됐다가 복직이 됐는데 행정법원 소송에서 다시 저서 또 해고가 됐어요. 행정소송에서 질 줄은 진짜 몰랐어. 이명박 정권이 독하긴 독하더라고요.”(김성금)

“노조하니까 집에서 왕복 5시간인 수원으로 발령을 내 버렸어요. 그러면 관둘 줄 알았겠죠. 하지만 분하고 억울해서 끝까지 다녔어요. 노조 생기고 2백50명이 그런 발령을 받았는데, 대부분 버렸어요.”(이병진)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언니들 윤거까지 다 손해배상으로 받을 거예요.”(김성금)

인터뷰·정리 최미진·이서영

〈민중의 소리〉비판

진보 언론이 여성차별을 부추겨서야

도대체 ‘베이글녀’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속옷만 걸친 여성의 커다란 화보와 함께 “165cm, 47kg의 가녀린 체형이지만 …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졌다며 감탄하는 내용이 뜬다.

그런데 답소사! 이것은 바로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민중의 소리〉 2월 17일 치 기사제목이다. 기사 밑에는 성형수술, ‘수술 없이 살 빼는 법’, 가슴 확대, 질 수축 광고가 줄줄이 뜬다. 이 외에도 온

갖 연예인 외모품평 기사들이 즐비하다.

오늘날 여성차별 중 일상적으로 여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바로 외모지상주의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혐오하면서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에 시달린다. 또한, 성 상품화는 여성들의 ‘섹시한 이미지’를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삼고,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취급한다.

진보언론이라면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는 스스로 여성차별적 관념을 퍼뜨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단지, 연예 뉴스나 광고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다. 현대차 파업에 참가한 여성 조합원들을 다룰 때조차 “미녀 쌍둥이”라며 외모를 강조하는 제목을 단 것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성차별적 내용이 가득한 연예·스포츠 섹션을 만들고 성형수술 광고를 실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민중의 소리〉 조합수를

올려 더 많은 광고를 유지하는 동안, 여성차별에 진지하게 맞서고자 하는 수많은 진보적 여성·남성 독자들이 실망하거나 멀어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나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중의 소리〉의 이런 행태에 대한 불만을 여러 번 들었고, 한 민주노동당 당원이 항의 편지까지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것은 〈민중의 소리〉에 실린 다른 진보적이고 훌륭한 기사들의 가치를 깎아먹을

것이고, 〈민중의 소리〉가 차별과 억압에 반대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레프트21〉이 정부와 기업의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독자들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돈이라는 수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중의 소리〉는 진보언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최미진

자본주의와 복지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편집자] 무상복지와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⑤ 좌파적 대안

“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은 더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 중 하나다.

얼마 전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매경이코노미>에 기고한 글에서 “7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와 최근 남부 유럽의 국가부도 사태 역시 복지재정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최근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를 연재했다. 복지에 돈을 퍼 준 나라들은 위기에 빠졌고(그리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등), 유명한 복지국가들은 복지 축소로 방향을 틀었으며(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복지를 마구 퍼주다가 줄이려니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더라는(프랑스 등) 게 요지다.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런 주장들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첫째, 1970년대 이전에 복지국가들에서 복지 지출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미국을 제외하면 국가 소비는 1955~1969년 사이에 모든 OECD 국가에서 실질치로 매년 3.9퍼센트씩 상승했다. 이때, 국민총생산은 5.7퍼센트씩 상승했다.”(이안 고프, ‘선진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국가지출’) 즉, 복지 등에 대한 국가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던 것이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호황이라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 영국에서 무상의료가 도입될 때 거대 섬유 기업 코볼츠의 사장은 “영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고수익 장기 투자”라고 예견했고 이는 적중했다. 영국의 전체 의료비 지출은 당시 미국보다 적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수준은 영국이 훨씬 앞섰다.

전후 호황기에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앞다퉈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 아



경제위기 시기에 복지를 늘리려면 노동자들의 삶보다 기업 이익(성장을) 우선시하는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니라 양질의 노동력에 대한 자본가들의 필요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를 낳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이윤율이 떨어지고 전후 장기 호황이 끝났다. 성장이 정체하는데 복지 지출이 예전처럼(혹은 고령화 등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난다면 그만큼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가 충분한 이윤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진 자본가들은 그 돈을 ‘생산적인’ 부문에 다시 투자하기를 꺼렸다. 대신 부동산이나 금융 투기에 돈을 쏟아부었고 지난 40년 동안 그런 거품이 꺼질 때마다 경제 위기가 반복됐다. 위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늘날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 진보진영 안에는 그리스 등 지난해 남부 유럽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빠진 것이 복지 때문이라는 보수파들의 논리를 일부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문제다.

“[그리스는] 연금의 경우 너무 일찍 돈을 주고, 실업급여의 경우 너무 오래 돈을 준다. 그래서 ‘복지병’이 생길 수 있다는 보수파의 비판은 상당한 논거가 있다.”(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터 대표)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임금도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다른 유로존 국가와 비슷합니다. 그리스가 문제가 된 것은 경제 위기로 최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중 상당 부분, 약 6백억 유로가 은행과 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부채를 급격히 늘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국제 시장이 그리스 국채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에 국제 자본가와 투기꾼들이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크게 뛴 것은 2009년 두바이 사태 이후였던 것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니코스 루도스, <레프트21> 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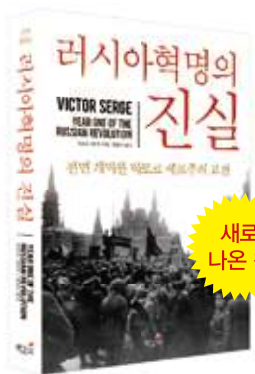
넷째, 일단 경제 위기가 시작돼도 복지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부자들에게 선물한 무려 1백조 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과 4대강 삼정에 퍼붓는 돈을 보라.

놀랍게도 지난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무기거래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노동자들의 건강, 노후, 양육보다 무기가 더 중요하다는 자본가들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요컨대 복지 확대가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대거나 경제 위기를 낳는다는 얘기들은 모두 불평등한 구조를 수호하려는 기득권자들의 거짓말일 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무상복지 요구에서 한 걸음도 후퇴해선 안 된다.

장호중



《러시아혁명의 진실》, 빅토르 세르주, 책갈피, 2011, 번역 황동하, 2만 4천 원, 6백24쪽

서평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됐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자들을 쫓아 버릴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 즉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지배자들을 권좌에서 내쫓는 데서 멈추지 않고 권력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통해 노동계급이 사회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음도 입증했다.

대체 이런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과정은 어땠을까? 세계사나 사회 교과서식 설명이 아닌 그 ‘진실’이 궁금하다면, 빅토르 세르주(1890~1947)가 1930년에 펴낸 《러시아혁명의 진실》을 읽어 보시라.

《러시아혁명의 진실》은 스탈린주의 저술가들이 화석으로 만들거나 왜곡한 혁명이 아니라 진짜 혁명, 즉 살아 숨쉬는 러시아혁명의 첫 해를 보여 준다.

러시아혁명의 첫 해는 1917년 11월 7일(구력 10월 25일)에 시작해 독일혁명

이 일어난 1918년 11월 7일에 끝난다. 이 시기는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중부 유럽의 혁명적 운동들로 퍼지는 역사적 드라마의 첫 국면이다.

《러시아혁명의 진실》은 이 기간을 자세히 다루면서, 러시아혁명이 소수가 일으킨 쿠데타라거나, 볼셰비키와 레닌 때문에 혁명이 스탈린주의로 변질됐다는 주장에 생생한 반론을 펼친다.

정당한 혁명적 대중 권력 기관

10월 25일 페트로그라드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10월 초부터 전국에서 자발적인 봉기가 터져 나왔고 농민 반란이 전국을 휩쓸었다.

10월 22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날, 봉기의 찬반을 묻는 대대적인 투표가 있었고, 대다수 투사들이 봉기에 찬성했다. 봉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한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 소비에트는 혁명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에게 토지와 빵,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는 혁명이 트로츠키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군중은 치켜든 손을 내릴 줄 몰랐다.

혁명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병사, 수병, 노동자들은 보급품과 실탄 재고량을 점검하는 등 전투에 나설 준비를 했고 자신들의 지휘관을 선출했다.

10월 25일 아침부터 혁명을 지지하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본가 임시 정부가 들어선 동궁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시 정부의 수장이던 케렌스키는 충성스런 부대를 이끌고 금방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한 뒤 궁전을 나와 도망쳤다.

봉기는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권력 장악이었다. “행동은 열정적으로 계획되고 주저 없이 실행됐다. 혁명은 유혈 사태 없이 신속하게 승리했다. 페트로그라드 봉기는 완벽하게 조직된 대중운동의 모범이다.”

음모나 당의 지지가 아니라 반드시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의 혁명적 고조에 의거해 봉기를 해야 한다는 러시아혁명

가 레닌의 주장처럼, 러시아혁명은 대중적 참여와 지지 속에 가능했다.

세르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중이 명확한 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조직뿐이다. 조직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 봉기를 일으킨 대중은 볼셰비키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필수적 과제, 수단, 목표를 명확히 인식했다. 이 말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또, 세르주는 레닌이 이끈 당이 나중에 스탈린이 지배하는 당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스탈린은 볼셰비키 전통을 대변하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세르주가 묘사한 레닌과 볼셰비키의 대외 정책도 스탈린의 정책과는 정반대였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으로 세운 노동자 권력이 다른 나라 노동계급에게까지 확산되기를 바랐지만, 스탈린은 ‘일국사회

주의’를 주장하며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구실을 했다.

스탈린 체제는 러시아혁명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었다. 일련의 구체적 사건들, 특히 독일혁명의 패배와 혁명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국제적 고립과 내전, 궁핍 속에서 해체된 것이 낳은 결과다.

세르주는 《러시아혁명의 진실》을 두 명의 혁명가에게 바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다.

그는 트로츠키와 이견이 많았지만, 트로츠키를 깊이 존경했고 트로츠키 저서들을 불어로 번역하는 등 트로츠키의 주장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러시아혁명의 진실》을 읽으면, 세르주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하다. 과거에 승리한 노동자 혁명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다음 혁명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말이다.

백은진

진보신당의 위기와 진로 논쟁

어떤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정경섭 진보신당 서울 마포구 당협위원장은 최근 <레디앙>에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겨 버렸다. ... 진보신당은 사람을 모을 돈도, 사람들의 발과 입으로 내세울 의원도 없다”고 위기감을 털어 냈다.

독자파와 통합파의 논쟁 속에 분열에 대한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파인 유의선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당원 모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으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냥 따로 가자’, ‘제 갈 길 가자’는 불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절대 함께 못하겠다며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일부 독자파의 태도는 당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해서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했던 조승수 대표 자신이 ‘종북파’의 핵심이라던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후보 단일화로 당선했다.

진보신당 지방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후보 단일화를 거쳐 당선했다. 그래서 정경섭 위원장은 독자 노선은 “그냥 고사되자는 거나 같은 소리”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정경섭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는 적이 아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옹계 지적한다. 진보정당이 차이점을 앞세워 분열할 게 아니라 이명박에 맞서서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 당원 다수는 이런 단결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당 선거에서 ‘진보통합정당에 단결해서 참여하자’는 유의선 후보가 절반 가까운 득표로 당선한 것과 통합파 두 후보의 득표 합계가 70퍼센트에 육박한 것은 이것을 보여 준다.

통합파 안에서도 국민참여당 같은 친자본가 정당과도 통합할 수 있다는 후보보다 진보정당 통합이 우선이라는 유의선 후보가 갑절 더 많이 득표했는데, 둘 모두 야권 선거연합 가능성은 열어줬다. 또 유 당선자는 당원 총투표를 주장하는데 이는 당 지도부에 여전히 독자파가 많아 대의기구에서 진보대연합이 통과될지 불투명하고, 분열의 위기감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통합파 지도자들은 진보대연합을 넘어서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까지 추구하고 있다. 심상진 진보



사진 제공 진보신당

진보대통합은 진보세력이 투쟁 속에서 단결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신당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대연합의 파트너인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민주대연합 노선에 기울어 있다.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는 민주당과 연합해서 이명박에 맞서겠다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작업안정법 개악을 한 나라당과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지마 통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독자파의 일부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장석준 상임연구소 연구기획실장처럼 “범민주당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고, ... [진보정당] 통합은 단지 그 사전 정치 작업”이라고 단정하며 진보대연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는

일관되지도 않다. 진보신당의 독자파 대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들의 야권연대에 침묵했다. 장석준 실장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독자파들은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만 민주대연합을 비판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따라서 진보대연합을 지지하고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대연합이 민주당연합의 사전 단계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에 복무하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집트와 중동의 민중 반란이 보여 주듯이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에 있다. 진보대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건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투쟁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쌓으며 선거에서도 진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홍익대 투쟁처럼 진보정당과 진보단체들이 단결해 연대한 곳에서 노동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투쟁도 전진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진보 양당이 단결한 곳에선 양당 지지를 함께 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더불어 단일한 정당 형태로 통합했다가 다시 당내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진보신당 평등파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 등 정치적 차이점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경섭 위원장은 “선불리 통합했다가 다시 분열이라도 된다면 진보정치의 미래는 거의 끝”이라고 걱정한다.

따라서 각 정치세력의 독자적 선전, 비판, 조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10~20개의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공동전선 모델이 단결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

김문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원칙’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란 문구를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중주체(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민노동당 강령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당이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감안해” 사회주의 강령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경제 위기·독재·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이 중동을 휩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을 논의하고 제시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이 진보대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지난 분당 사태 때도 논쟁이 된 것은 자주파 경향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였지 사회주의 강령은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현재의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사회주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의 급진성을 희석시켜 선거에서 표를 더 얻거나 친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손쉽게 하려는 선거주의·계급 협조주의가 사회주의 강령 삭제의 진정한 의도일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후퇴일 뿐 아니라 계급 투쟁의 전진을 꺾어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후퇴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주파 경향 지도부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내 좌파들의 반대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의견만 관철하려는 패권주의라 할 만하다.

더 많은 진보적 대중을 단결시키는 길은 원칙을 지키며 유연한 전술을 제시해 왜 진보정당이 대안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원칙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면 민주당 등과 차별성은 줄어들고 진보정당의 매력은 줄어들 것이다.

“당원의 눈높이”를 평계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사회주의 강령 삭제 주장은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제기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자주파 지도부가 제기한 것이다.

오히려 <한겨레>도 지적하듯이 “기층 당원들 사이에선 사회주의 원칙의 포기를 심각한 후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강령 삭제를 중단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발전시키고 주장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혁명인가 쿠데타일 뿐인가?

레온 트로츠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이 다음과 같이 독일어로 말했다고 회상한다. “에스슈빈텔트(현기증이 날 정도다).”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면 혁명은 혁명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아찔함을 느꼈다.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에서 1월 14일 튀니지의 대중이 벤 알리의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두 주 반이 지나 이집트에서는 더 강력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대중 시위로 쫓겨났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으로 무엇이 얼마만큼 변했을까?

전략·정보 웹사이트 ‘스트랫포’의 제국주의적 현실론자인 조지 프리드먼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위대는 정권을 고사하고 무바라크도 쓰러뜨리지 못했다. 군부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

해 시위대를 핑계로 삼아 무바라크를 쫓아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군부는 2월 10일 무바라크가 제 발로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인되자 사임을 강요하기 위해 쿠데타나 다름없는 짓을 했다.”

프리드먼이 보기에 이집트 혁명은, 무바라크가 자신의 아들인 가말을 계승자로 삼으려 하면서 빚어진 무바라크와 군부 사이의 갈등을 군부가 해결할 수 있었던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이 분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분석에서는 무바라크가 퇴진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끌던 체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집트 국가의 핵심, 바로 억압 기구들이 건재하다.

중앙보안군은 1월 28일 거리 전투 과정에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군대는 건재하다.

실제로, 군 장성들이 지난주 금요일 행동

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군대가 동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성들은 많은 징집병과 하급 장교가 시위대와 우호와 친선을 나누면서도 과연 충성심을 유지할지 우려했을 수 있다.

1978~79년 이란 혁명에서 사 정부가 무너진 것은 몇 달 동안 시위와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군대가 유혈 참극을 벌이면서 군의 사기와 응집력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었다.

체제 수호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무바라크의 고집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상기시켰다. 그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이집트 군부는 무바라크를 냉혹하게 내쳤다.

그러나 군부는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스스로 권력을 맡으면서 엄청난 주먹을 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군부 최고위원회의의 출현은 1952년 이

후 가말 압둘 나세르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의 군사평의회, 즉 혁명지도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의 수장인 모하메드 탄타위는 나세르가 아니다. 최근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밝혀진 이집트 주재 미대 사관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카이로 인근의 [국방부] (전용) 클럽에서는 탄타위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중급 장교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탄타위를 ‘무바라크의 푸들’이라고 부른다.”

이 증언에 비춰 보면 군사평의회는 현상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이것은 프리드먼 분석의 오류를 보여 준다.

무바라크와 군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였던 장성들이 무바라크를 제거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집트 전역에서 조직된 대중 행동 때문이었다.

현재 군부는 호리병에서 나온 거인 지니를 다시 병에 담으려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바라크의 하야를 앞두고 며칠 동안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파업 물결의 확산이었다.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집트 노동자 투쟁은 1940년대 이후 가장 격렬했다.

앞으로 이집트에서 1905년 러시아 혁명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분석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선, 정치적 승리에 고무된 노동자는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었던 경제적 고통에 관한 해결책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정권 자체를 제거할 정치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집트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번역 천형석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홍익대 노동자들의 통쾌한 승리 후에
도 대학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 병원, 연
세대, 이화여대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의 날 집회가 열리는
3월 5일에는 파업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
다. ▶ 관련기사 13면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에 속한 이 노
동자들은 단결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 대학 당국과 이 대학들이 고용한 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공동 요구를 내걸고 집
단교섭을 벌여 왔다.

그동안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별로 교섭해 왔고 심지어 한 대학에서 일

해도 여러 용역업체들로 나뉘어서 고용
계약을 맺어 왔는데, 이런 칸막이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 세 대학 노동자들은 그동안 폐지
수당 박탈, 체불임금, 부당해고, 노조 사
무실 퇴거 조치 등에 맞서 투쟁해 왔고
모두 승리했다. 이 때문에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 들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노동
자들의 기세에 밀려 공동으로 교섭에 나
설 수밖에 없었다.

집단교섭에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시급 5천1백
80원, 월 1백8만 원가량, 2009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제대로 쉴 수 있고 밥을 먹
을 수 있는 휴게공간, 대학 당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도 요구한다.

하지만 대학 당국들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
고, 용역업체들 역시 최저임금에 맞춰진
대학 당국들의 용역비 때문에 어쩔 수 없
다고 버텼다.

최저임금은 정말이지 “최저” 수준일
뿐, 노동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적립금을 엄청
나게 쌓아 놓은 대표적인 부자 대학들이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
는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

은 납득할 수 없다.

대학 미화 노조 중 “막내 노조”인 홍익
대분회가 최근 승리한 것을 보면서 세 대
학 노동자들은 이제 “언니 노조”인 자신
들이 앞장서서 투쟁과 요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개강 후 본격화할 이 노동자들의 투쟁
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그동
안 학교 당국은 자신이 사용자는 아니라
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운운하며 노동
자들의 파업을 공격하기 일쑤였다. 그러
나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것은
학교 당국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화

노동자들이 무패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
던 주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홍익대처럼 배은망덕한 총학생회가
외면할 때조차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부
문을 뛰어넘은 노동자들의 연대가 큰 힘
이 됐다.

이제 노동자들은 공동 교섭과 공동 파
업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얻으려 한다.

홍익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여성 저
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중의 문제의
식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이 투쟁이 전
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중환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희망과 갈 길을 보여 준 49일의 드라마

홍익대 미화·경비·시설 노동자들이
투쟁 49일 만에 감격스런 승리를 거머쥐
었다.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 임금 인
상, 노동조합 활동 권리 등을 쟁취했다.

투쟁에 나서기 전까지 이들은 기본급
75만 원, 하루 식대 3백 원, 노조 결성 불
인정 등 상식 이하의 노동 조건에 있었다.
굶은 일을 도맡아 하고도 눈에 띄면 안 되
는 사람인 양 괘시와 천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학교측이 비정규직 1백70명 전
원을 해고하자, 노동자들은 기나긴 설움
의 세월을 뒤로하고 당당히 펼쳐 일어섰
다. 이 고령의 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탄압
에도 굴하지 않고 49일 동안 찬 바닥에서
점거 농성을 지속해 값진 승리를 따냈다.

한 경비 노동자는 “1년에 2만 원씩 오르
던 임금이 노조를 만들어 싸우니 20만 원

올랐다”며, “10년 결렬 일을 두달 만에 이뤘
다”고 기뻐했다. 한 미화 노동자는 남편에
게 축하 메시지를 받았으며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았듯이, 젊은 사람들도 부
당한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과 착취로 고통받아 온 사람들의
한숨과 울분을 대변한 홍익대 투쟁의 승
리는 우리 사회 억눌린 사람들 모두의 승
리다.

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거센 공격과 탄
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우며 광범한 연
대를 건설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을 보여 줬다.

지난 몇 년 사이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투쟁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성신
여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동국대
등 곳곳에서 미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

성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런 흐름을 막으려는 지배자들의 시도
가 홍익대 당국의 거센 반격으로 나타났
다. 저들은 홍익대에서 승승장구하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물줄기를 끊으려
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지
와 광범한 연대가 저들의 반격을 꺾었다.

승승장구

커다란 지지 여론, 끊이지 않는 지지
방문, 국제적 연대, 좌파 단체와 학생 들
의 지지 행동,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수
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대 집회가 결국
학교 측을 무릎 꿇게 했다.

“총학생회 집행 간부 몇 명을 빼고 거
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를 지지했다”는 박
명석 공공노조 서경지부장의 말처럼 학

교 측은 홍익대 안에서고 고립됐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 간부들은 연대 단체들을
“외부세력”이라고 비난했지만, 노동자들
은 오히려 “외부세력이 없으면 투쟁이 안
된다”며 연대를 확대했다.

이숙희 홍익대분회장은 “연대 단체들
에게 감사하다.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았
고, 큰 힘이 됐다.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연대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또한 이번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
동자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대한
통쾌한 일격이다. 홍익대 투쟁 덕분에 이
정부의 노동부 장관조차 청소 노동자들
이 “씻고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고소·고발을 철화시키고, 학교
측이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직접 고용을 받아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홍익대 분회는 이번 승리를
초석 삼아 학교 당국의 원청 사용자성 인
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승리는 다시 다른 대학 노동
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해 투쟁을 자극하
고 있다.

이숙희 분회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
다 열악하고 비참한 처우를 강요당하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싸울 수만 있으면 얼마든
지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대 노동자들처럼 단호하게 싸우
고 강력한 연대를 건설해 맞선다면 이명
박 정부와 기업주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투쟁 건설에 전국의 노동자·학생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종남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